

토크빌 민주주의론의 핵심 개념 분석 - 개념 형성사와 분석적 재구성을 중심으로 -

이 황 직*

I. 다시 토크빌을 읽는 이유

21세기 들어 토크빌(Alexsis de Tocqueville)이 화려하게 부활했다. 『민주주의 저널』(Journal of Democracy)의 편집자는 토크빌의 저작이 미래 민주주의의 다양한 문제들에 미칠 지적 영향력을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모두는 토크빌주의자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Welch, 2006: 1). 불과 수십 년 전까지 토크빌은 모국 프랑스에서조차 잊혀진 사상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Levi, 2007), 귀족 출신의 19세기 보수주의자로만 띄엄띄엄 기억되던 토크빌이 이제 21세기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줄 수 있는 사상가로 재조명된 것은 드라마보다도 더 극적인 지성사의 사건이었다.

토크빌을 처음 재조명한 레이몽 아롱(Raymond Aron)과 제이콥-페터 메이어(Jacob-Peter Mayer)는 모두 히틀러와 전체주의에 맞섰던 용기 있는 전사들이었다. 신좌파가 학계와 문화계를 장악했던 1960년대 후반의 서구 사회에서 소르본의 사회학 교수 아롱은 토크빌을 맑스와 버금가는 사상가일 뿐만 아니라 전체주의에 대적할 논리를 제시한 자유주의 사상가로 높게 평가했다(아롱, 1980). 아롱이 공군 장교로서 독일군에 맞섰다면 메이어는 반나치 투쟁 경력의 전사였다. 메이어는 1951년부터 일찌감치 완벽한 『토크빌

* 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대학 기초교양학부(futurius@sookmyung.ac.kr)

전집』을 편찬에 착수하여 훗날 토크빌 재발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했다. 이 들보다 앞서, 피어슨(George W. Pierson)은 노르망디의 토크빌 가문 고성에서 미국 여행 노트를 찾아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했다(Pierson, 1996[1938]). 21세기의 ‘토크빌의 부활’은 이러한 선구적인 노력들에 의해 축적된 자료 덕분에 가능했다. 오늘날 토크빌은 정치사상가로서의 위상을 넘어서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선구자로도 불리고 있다. 비교사회학의 개척자이자 제도와 습속의 핵심 요소로 제시한 사회과학 방법론의 혁신자, 자유에 대한 강조를 통해 다수 지배의 민주주의에 이의를 제기한 정치학자, 나아가 시민 결사와 참여를 통해 비로소 달성할 수 있는 ‘강한 민주주의’의 선구자라는 명예로운 칭호가 토크빌의 이름 앞에 붙여졌다(이황직, 2009). 최근에는 온 엘스터(Jon Elster)에 의해, 구조주의적 접근 방법에 맞서서 방법론적 개인주의의 흐름을 선구적으로 수행한 “최초의 사회과학자”로 명명되기도 했다(Elster, 2009).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달리 유독 우리 학계에서는 토크빌에 대한 연구가 거의 수행되지 못했다. 1980년대 들어서 비로소 토크빌의 주저 『미국의 민주주의』(1983, 2018[1835~1840])와 『구체제와 프랑스혁명』(1989[1856])이 번역되었지만, 마침 그 시기 대학가에 불어 닥친 반미주의의 열풍과 뒤이은 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유행 때문에 토크빌에 대한 학계와 대중의 관심은 거의 없었다. 사회구성체론, 국가론, 정체성의 정치 등이 차례대로 사회과학의 주요 테마로 수입·유통되면서 막상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었던 시민 문화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지적 자원인 토크빌의 사상은 사실상 무시되었다.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정치적 자유의 수호자인 토크빌의 가치는 자율적 시민사회를 강조했던 일군의 학자 집단에게서만 진지하게 탐구되었다. 1993년에 토크빌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그 연구 성과를 책으로 묶어 간행한 진덕규 중심의 ‘글방모임’ 학자들(진덕규 외, 1996)과 2002년부터 토크빌 전통의 습속 연구를 국내에서 수행한 박영신(2004) 등이 바로 그 주역으로서, 이들은 시민문화론 중심의 토크빌 부활의 흐름을 대표한다. 민문홍(2008)의 연구도 그 흐름의 연장선상

에 있다. 그밖에 프랑스 정치사의 흐름에서 토크빌의 업적을 탐구한 방문숙(1997; 2001), 홍태영(2001; 2006; 2008)의 연구와 이용재의 번역, 그리고 자유주의 정치사상사의 맥락에서 토크빌을 탐구하는 서병훈(2017)의 작업이 현재 토크빌 연구사의 중심에 있다.

오늘 우리가 토크빌을 다시 읽는 이유가 단지 서구 학계의 흐름에 보조를 맞추려는 데 있지는 않다. 우리의 민주 정치가 과거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데, 이러한 위기적 징후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토크빌의 지적 자산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본래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는 가장 성공적인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의 길을 걸었다는 세계 학계의 평가를 받을 만큼 잘 작동했다(Valenzuela, 1992)1).1) 그런데 카리스마적 정치 지도자들의 존재 덕분에 가능했던 온건 개혁의 민주화 방식은 그들의 퇴장 이후 그 지도 방식을 대체해 갈 대화와 타협의 정당 정치 부재 속에 정치 갈등의 격화를 낳았고 그 틈을 길거리 정치와 포퓰리즘이 장악해 갔다. 군사정변 같은 체제 바깥의 도전에 의한 탈민주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오늘날의 상황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이제 민주 체제의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출현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원리 안에는 이미 민주주의를 붕괴시킬 위협 요소가 내장되어 있었다. 과거 권위주의 체제하에서는 현실화되지 않았던 그러한 위협 요소에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었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 한 세대가 지나면서 상상 속의 위협은 이제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토크빌은 건국 이후 약 두 세대가 지난 미국을 방문하여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가 시민의 의지와 능력이라는 점을 발견했고 아울러 미국 시민들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지를 관찰했다. 토크빌의 「미

1) 비교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이 제시한 민주주의 공고화의 최소 강령적 정의의 조건 가운데 두 차례의 정권 교체가 있는데(Huntington, 1991: 266-267), 우리 국민들은 지난 이십년간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 교체를 무려 세 차례나 수행했다. 애덤 셰보르스키는 국민들이 선거를 “우리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게임”으로 인식하고 패자가 선거 결과를 수용하는 태도를 갖게 될 때를 민주주의의 공고화로 정의한 바 있는데(Przeworski, 1991: 26), 일부에서 선거불복의 심리가 남아 있기는 지만 이 역시 전세계적인 현상의 수준에 머문다.

국의 민주주의』가 현재까지도 “민주주의에 대해 쓴 가장 뛰어난 책이자 미국에 대해 쓴 가장 뛰어난 책”(Mansfield and Winthrop, 2002: xvii)으로 평가 받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미국의 민주주의』의 가치는 다수의 폭정론을 체계적으로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완성될 민주적 전제론의 윤곽이 최초로 그려져 있다는 점에 있다(이황직, 2012). 따라서 민주주의가 태동 중이던 19세기보다는 민주주의가 세계적으로 제도화된 오늘 그 중요성이 더욱 빛을 발한다. 다수의 지배에 기초한 민주정치의 딜레마는 주권자 시민의 선택이 틀릴 수 있고 게다가 다수에 의한 소수의 탄압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데에 있다.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와 『구체제와 프랑스혁명』, 그리고 여러 연설과 논술을 통해 신생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의 정치사회 체제와 프랑스의 체제를 비교 분석하면서, 이러한 위협이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는지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보완책을 두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그런데 토크빌의 생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저술 전체와 관련 부분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작업과 당시 미국과 프랑스의 상황에 대한 문맥적 이해가 필수적이다. 토크빌을 반민주주의자로 오독하거나 또는 미국 민주주의 습속의 핵심인 종교성의 중요성을 빠뜨리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이는 그런 복잡한 과정을 생략한 채 기계적인 독해를 수행한 데서 기인한다(아블라스터, 2007; 박홍규, 2008).

이 논문은 토크빌에 대한 무관심과 오독을 넘어서기 위해 분석적 재구성의 방법과 콘텍스트 해석을 사용하여 그의 전체 저작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개념의 의미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토크빌의 저작들을 검토하여 그의 민주주의 개념을 분석하고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미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살펴볼 것이다(2장). 이어서 민주주의론의 세부에 해당하는 개념인 자유와 평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개념들 각각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어떻게 서로 관련되어 토크빌 민주주의 이론의 독특한 성격을 형성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3장).²⁾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이 논문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

2)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서 이 논문에는 토크빌의 주저와 단편들이 소개되는데, 그 인용 출처는 다음과 같이 약식으로 표기된다. (1) 『미국의 민주주의』와 『구체제와 프랑스혁명』에서의 인용은 괄호 안에 권·부장의 순서로 숫자를

의에 적합한 헌법적 재설계라는 당면 문제는 물론이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주주의 정치 과정에 필수적인 시민 덕성을 고양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작업은 새로운 위기에 처한 한국의 민주주의를 점점하는 데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II. 토크빌의 민주주의 개념과 형성 과정

토크빌의 학문적 기여의 대체는 민주주의 정치학의 확립에 있다. 민주주의를 대하는 토크빌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가치중립적이다. 민주주의를 칭송할 때도 결코 흥분하지 않고, 그 문제점을 지적할 때도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의 분석 대상이 민주주의 일반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특정한 나라의 민주적 정치 제도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정치 제도 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제도적 가능성이 있기에 그는 선불리 미국의 제도를 다른 나라가 채택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미국이 당시 가장 선진적인 민주적 정치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분석은 곧 미래에 일반화될 민주주의를 한 걸음 앞서 검토할 수 있는 사례를 제공한다.

기존의 정치사상사가 계약론적 전통에서 발전하여 이상적 정치체제를 탐구한 데 반해, 토크빌은 실제 존재하는 민주 정치체제인 미국의 제도와 습속을 관찰하여 그 특성을 규명했다. 계약론적 전통이 계약 이전의 ‘자연상태’에서 논리를 출발하는 데 반해, 토크빌은 실제 고찰 가능한 ‘사회상태’에서 민주주의의 조건을 탐색했다(이황직, 2009). 토크빌의 첫 저서인 『미국의 민주주의』가 높게 평가 받는 이유는 미국 민주제도에 대한 충실한 탐색 못지않게 그것을 뒷받침한 방법론적 혁신에 있었다. 그런데 막상 토크빌은 방대한 분량의 『미국의 민주주의』 I권과 II권 어디에도 민주주의의 개념 정의를 제시하지 않았다. 대개 사상사 고전이 그렇듯이 토크빌 역시 독자들에게 쉽게

표시한다. 보기를 들어, I권 2부 5장에서 인용한다면, 인용문 뒤 괄호 안에 ‘『미국의 민주주의』(I-2-5)’로 표시할 것이다. (2) 그 밖의 저술에 대한 출처 표시는 일반적인 본문주 방식을 사용한다.

그 답을 보여 주지 않았다. 어찌 보면, 미국이라는 한정된 연구 대상의 제도를 탐구한 결과만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일반적 정의를 수행하지 않은 토크빌의 자세가 적절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제목에 해당하는 개념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조차 없었던 점 때문에 토크빌의 사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혼란스러운 출발을 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을 넘어서서 민주주의 일반에 대한 토크빌의 생각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그의 다른 저서와 기록들을 종합하는 작업 말고도 특히 『미국의 민주주의』 저술의 배경에 해당하는 그의 미국에서의 경험을 검토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피어슨(Pierson, 1996[1938])의 작업부터 최근 담로쉬(Damrosch, 2010)의 저술에 이르는 토크빌의 미국 경험에 대한 연구 전통이 이어져 내려온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이 과정에서 토크빌 민주주의 개념의 특성과 함께 부수적으로 자유와 평등 같은 기본적인 개념의 의미가 명료하게 밝혀질 것이다.

토크빌이 명시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해 내린 정의는 『미국의 민주주의』 I권이 출판된 지 13년 후인 1848년에 씌어진 “민주주의의 정의”라는 단편에서 겨우 찾을 수 있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 지식, 권력을 최대한 누리게끔 하는 것이다. 민주적인 정부란 무엇인가? 자유를 제한하는 대신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고, 새로운 장벽을 세우는 대신 규제를 혁파하고, 억지로 자유를 이끌어내는 대신 스스로 자유에 이르게끔 지식과 자원을 제공하는 정부이다. (……) 모든 시민에게, 심지어 가장 비천한 자들까지 포함해서, 최상의 시민으로서의 독립성을 갖고 행동하게끔 하는 정부이다. (……)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난하라고 강요하는 대신 모든 이가 정직한 방법으로 일을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정부이다 (Tocqueville, 2002[1848]: 250).

『미국의 민주주의』의 저자인 청년 토크빌이 아니라 후기의 원숙한 사상가로서의 토크빌의 생각이 반영된 이 정의에서 토크빌은 민주주의를 다수 지배 체제가 아니라 독립된 시민이 최대한 자유를 누리는 체제로 규정했다. 이

는 「미국의 민주주의」의 서술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얼핏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비슷해 보인다. 이러한 토크빌의 관점은 1848년 혁명 이후 세력을 확대한 사회주의 세력이 민주주의를 인민의 지배로 이끌어간 것에 맞서기 위해 형성된 것이었다. 민주주의는 하나의 통치 체제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지배는 억압적일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시민은 지배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독립된 시민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부를 축적한 시민이 많아지면 스스로 자유를 누리고자 할 것이다. 시민들의 지식과 덕성이 높아지면 억압적 지배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자명한 전제하에서 작동하는 민주주의는 사실상 근대적 공화주의와 구별되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글자 그대로 인민의 지배로 이해하는 학자들이 토크빌에 대해 비판적인 이유는 이러한 관점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그렇다면 토크빌의 정치사상적 지향이 잘 드러난 주저에서는 실제 민주주의가 어떤 의미로 드러나는지 분석해 보자. 최근의 엘스터(Elster, 2009: 133)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토크빌이 민주주의를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했다고 파악한다. 하나는 일상적인 민주주의 개념과 같은 ‘국민주권의 통치’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독특한 양상으로 ‘사회 상태의 평등’이다. 실제로 「미국의 민주주의」 1권 1부의 실질적 서장인 2장은 사회 상태의 평등에서부터 시작하고 있고, 2부의 서장은 국민주권의 통치 체제로서 미국을 검토하며 시작한다. 이러한 단서에서 출발하면 토크빌의 저술이 특수한 대상으로서의 미국과 일반적 대상으로서의 민주주의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갖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토크빌의 민주주의론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상식적인 국민주권정부론보다는 미국의 경험을 분석한 평등으로서의 민주주의 개념을 더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토머스 제퍼슨이 기초한 1776년 ‘독립선언서’에는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언명하고 있다(한국미국사학회, 2006: 65). 노예와 원주민을 예외로 한다면, 토크빌의 미국 여행 시점에서 미국인에게 그 구절은 자명한 사실을 담은 것이었다. 청교도로서의 평등함에 대한 종교적 자각 덕분에 이들은 출발선부터 평등하게 진전해 나가는 것을 두려

워하지 않았다. “미국 사회는 유년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성년으로 태어났다.”(『미국의 민주주의』, I-2-9). 그 선조들은 누구도 신대륙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해 오면서 사실상 자유인이었고 산업적 노력을 통해 재부와 지식에서 평등한 상태를 만들었다. 따라서 그들의 자손들은 이념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평등하게 태어”난 셈이다.

미국인들은 이러한 행운에 안주하지 않았다. 이들은 교육을 통해 모든 이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일회적 우연을 영구화하고자 했다. 그 결과, 위대한 작가도 뛰어난 과학자도 없지만, 미국인들의 평균적인 지적 수준은 구대륙의 그것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었다. 독립 이후 50여 년이 흐르고 나서 미국의 평등화 수준은 더욱 깊게 진행되었다. 토크빌은 바로 그 시대에 미국을 둘러보며 민주주의와 평등을 동일시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첫 인상이자 연구의 결론 모두에서 토크빌은 자신 있게 미국 사회의 특성을 “사회 상태의 평등”이라고 지적할 수 있었다. 토크빌은 그 평등이 미국인에게 자유의 정신을 불려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평등과 자유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사회 상태의 평등이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초일 수는 있겠지만, 평등만으로 민주주의가 완성되지는 않는다. 평등과 자유가 조화를 이룬 미국과 달리, 평등을 우선한 나라들의 정치는 모두 전체주의적 지배 체제로 귀결되었다. 그런 각성에는 토크빌이 뉴욕에서 구입했지만 촉박한 일정 때문에 짐 꾸러미에 넣어 두기만 했던 두 권의 책을 남부로의 여행 중간인 오하이오 주에서 비로소 꺼내 읽게 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Pierson, 1996[1938]: 602).

3)³⁾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선제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저서들을 읽고 미국 지성들과의 대화를 통해 미국 정치제도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서 토크빌 민주주의론의 틀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평가와 달리, 토크빌의 저술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적 맥락과 일반론 사이에서의 긴장을 더 세밀하게 분석

3) 한 권은 미국 건국기 연방주의자였던 알렉산더 해밀턴, 제임스 매디슨, 존 제이의 「페더럴리스트 페이퍼」(*The Federalist*)였고, 다른 한 권은 제임스 켄트(James Kent)의 「미국법 주석」(*Commentaries on American Law*)이었다.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긴장이 잘 드러나는 것은 주로 토크빌이 미국에서의 경험을 서술하며 프랑스와 은연중 비교를 시도했을 때이다. 따라서 토크빌의 민주주의 개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이 형성되는 동적인 과정, 곧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체험했던 그의 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초 뉴욕에서 머문 기간의 “첫인상”(Pierson, 1996[1938]: 67-76)에 해당하는 미국인의 상업적 본성에서부터 뉴잉글랜드 지역의 지역 자치의 시민 문화와 보스턴 지식인 집단의 공화주의적 성격, 그리고 연방을 이끌어가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 등 토크빌은 9개월간의 미국 체류 기간 동안 민주 정치의 기초에 대해 다채로운 경험을 했다. 이를 통해 발견한 미국의 정치·사회적 특성은 프랑스의 경우와 극명히 대비되는 것이었다. 언뜻 보면 미국의 시민사회와 행정체계는 민주 정치에 매우 부적절해 보였다. 프랑스 공화주의자들의 지적 우월함에 비한다면, 미국의 시민들은 상업에 종사하는 중간계급으로서 친절하지만 지적 교양을 갖추지 못한 속물이었다. 루이 14세 시절부터 2백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프랑스의 중앙집권 체제하의 완벽한 관료제에 비추어볼 때 미국의 행정은 비능률적이었고 공평하지도 못했다. 더구나 최전선에서 혁명에 참여했던 귀족이 존재했을 만큼 진보적이었던 프랑스와 달리, 공화주의와 연방제를 선호하던 미국의 지성들은 인민의 지배로서 민주주의를 두려워했다(Zunz · Kahan, 2002: 52). 하지만 그러한 첫인상과 달리, 토크빌은 미국 사회가 민주주의적 습속을 바탕으로 제도화되어 있다는 것을 얼마 후 발견했다. 대도시 뉴욕의 시장조차 작은 기숙사에서 거주할 정도로 미국은 중간계급이 지배적인 사회였다. 미국의 행정이 불완전한 것은 시민들의 요구에 정치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였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종속되었고 심지어 사법부까지도 중앙집권화된 프랑스와 달리, 미국에서는 ‘주 정부가 원칙이고 연방정부는 예외’일 만큼 지방 권력이 독립되어 있었고 하급 판사조차 위헌법률심사제청권을 제청할 권리를 가질 만큼 사법부가 자율적이었다. 그런 까닭에 미국 시민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공직자를 존경했는데, 이런 태도는 공직자가 국민 위에 군림하던 프랑스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이런 역설적인 상황을 야기한 근본적 요인은 미국인의 자치에 대한 열정에 있었음을 토크빌은 미국 체류 중간에 비로소 깨달았다. 미국인들은 ‘자치 없이는 자유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최초의 민족이었다. 건국 후 50여 년이 흐른 당시에도 미국의 민주 정치는 여전히 활기에 차 있었는데, 토크빌은 그 주요 원인을 미국이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의 핵심인 지역 자치의 경험을 통해 훈련된 시민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찾았다.⁴⁾ 자치의 핵심 단위인 타운은 미국인들에게 삶의 기반이면서 동시에 정치의 출발점이다.

마을 제도들이 자유에 대해 갖는 관계는 초등학교들이 학문에 대해 갖는 관계와 같다. 마을 제도들은 자유를 인민의 손이 닿는 곳에 놓아 주며, 자유를 평온하게 누리고 익숙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한 국민은 마을 제도들이 없어도 자유로운 정부를 가질 수 있겠지만, 자유의 정신은 가질 수 없다(『미국의 민주주의』, I-1-5).

식민지 시기부터 미국인들은 개척민들의 필요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타운에서의 삶의 방식과 타운 집회(town meeting)를 통해 획득한 특유의 자유와 자치 정신을 발전시켰다. 그런 까닭에 토크빌은 타운을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 빗대기도 했고(『미국의 민주주의』, I-1-2), 타운을 건설한 정착민들이 가장 먼저 학교를 설립하고 유지하는 일에 대해 칭찬한 바도 있다. 또 타운이 활성화된 뉴잉글랜드 지역을 보기로 타운 제도에 대해 세밀히 설명하기도 했다(『미국의 민주주의』, I-1-5).

미국인의 타운을 관찰하며 토크빌은 미국과 유럽의 결정적 차이가 자치 여부에 있다고 판단했다. 유럽의 통치권자들은 지역 거주민들이 공공정신이

4) 루소(1990)는 「사회계약론」에서 타운 같은 시민들의 자치단체와 다양한 형태의 시민 연합(사회단체, 이익단체 등)이 특수의지를 갖는 불완전한 상태이므로 국가의 일반의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반면에 토크빌은 시민들이 연합의 훈련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넘어서 사회 공동의 이익을 향해 나아가는 경험을 하게 되고 국가에 맞서 시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역동성을 미국에서 발견했다. 루소의 일반의지가 민중 혁명과 동시에 전체주의를 옹호한다면, 토크빌의 시민 연합은 민중 혁명과 전체주의를 막는 방파제에 해당한다.

부족하다고 한탄하면서도 막상 지역에 정치적 권리를 주기는 꺼렸다. 이는 자치가 중앙정부를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기 때문이다. 신분제와 계급제가 없는 미국 사회가 내면에서 굳게 통합할 수 있게 된 데는 타운단위에서 맺어진 결사와 자치의 경험, 그리고 거기서 얻는 자유와 협력의 훈련이 큰 기여를 했다. 이러한 자치 능력 없는 민주주의를 미국인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토크빌은 생각했다.

미국의 자치 제도를 점검한 토크빌은 최종적으로 이를 프랑스와 비교 분석한다. 프랑스는 1789년 혁명 이후 왕정과 인민 정권을 오갔지만 그 혼란의 와중에도 중앙집권 체제는 지속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중앙집권 체제는 장기적으로 시민들의 자율성과 지역의 활력을 잃게 해 결국 나라의 힘을 약화시킨다. 그런 체제하의 주민은 자기 지역에 대해 무관심한 거주민일 뿐이기에 모든 행정 업무에서 방관자로 남게 되고, 심지어 자신들의 안전이 침해받아도 국가가 개입해 줄 때까지 기다릴 뿐이다.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는 그것을 만든 왕정을 무너뜨린 혁명 세력들이 기존 통치기구를 접수하여 절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 민중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무차별적인 폭정은 개인과 지방의 자유를 도로 억압하면서 국민의 이름으로 전제 권력을 부활시켰다. 미국의 경우는 달랐다. 자기의 이익과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이들은 자치의 경험을 통해 그것과 공동체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방법을 배웠다. “내가 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것은 지방분권화의 ‘행정적’ 결과가 아니라 ‘정치적’ 결과이다”(『미국의 민주주의』, I-1-5). 이러한 경험적 성찰을 통해 계몽된 시민들은 위로부터의 통치의 경우에서보다 더 효과적으로 자신들의 결집된 의지를 실천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켰다. 자치의 정신을 통해 개인의 이기심과 공동체의 이익이 대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기에 미국인들은 적극적으로 국가 이익에 관심을 쏟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인의 지역 자치의 경험은 서서히 중앙 정치에도 영향을 미쳤다. 토크빌이 미국을 방문하던 시기는 마침 미국 민주 정치의 전환기에 해당한다. 버지니아 명문가 출신들이 대통령을 역임했던 미국에서 처음으로 서민 출신인

앤드류 잭슨이 제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고, 이때부터 잭슨의 대중민주주의 정책을 둘러싸고 기존의 민주공화당과 신생 휘그당에 의해 대규모 정당 캠페인이 재생하기 시작했다. 토크빌은 방문지마다 열리는 공공집회에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거기서 벌어지는 시민간의 토론 열기야말로 시민들이 민주주의 정치에서 주권자임을 확인하는 의례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미국 땅에 발을 디디자마자 일종의 혼란 상태에 놀라게 된다. 사방에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이 소음이 들리고 동시에 들리는 수천 명의 목소리가 자기들의 사회적 욕구의 충족을 요구한다. (……) 사회의 관리에 참여하고 그 문제를 토의하는 것은 미국인의 가장 큰 관심사이고, 그가 알고 있는 유일한 즐거움이다. 이런 느낌이 가장 하잘 것 없는 생활습관들에게까지 스며들어 있다. 여자들까지 자주 공공집회에 참석해서 가사노동으로부터 벗어나는 여흥으로서 정치연설에 귀를 기울인다. 토론 클럽들이 연에 여흥을 어느 정도 대신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인은 대화는 할 수 없지만 토론할 수는 있고, 그의 말은 주장으로 변해버린다. 그는 마치 자신이 어느 모임에서 연설하듯이 상대방에게 말한다. 우연히 토론이 무르익게 되면 그는 자신과 대화하는 상대방에게 “신사 여러분” 하고 말할 것이다(『미국의 민주주의』, I-2-6).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토크빌의 민주주의에 대한 유일한 정의는 1848년 혁명의 외중에 특정한 정치적 목적하에 제시된 것뿐이라서 오해가 있을 수 있었는데, 미국에서 경험한 민주 정치를 통해 토크빌이 실제로 구성한 민주주의 개념을 정리할 수 있다. 일반적인 국민주권의 체제로서의 민주주의 개념 외에 토크빌의 민주주의 개념에 필수적인 요소로는 사회상태의 평등과 지역 자치의 관습을 들 수 있다. 물론 이런 개념 정의만으로는 토크빌 민주주의 이론의 핵심 원리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는 민주주의 개념의 세부 구성 요소들을 분석할 것이다.

Ⅲ. 자유와 평등의 상호보완성 탐색

토크빌이 사상으로서의 민주주의를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리는 체제’로 규정했고, 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으로는 ‘사회상태의 평등’과 ‘지역 자치의 관습’을 제시했다는 점을 앞서 정리한 바 있다. 사상으로서의 민주주의와 실체로서의 민주주의가 달리 정의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토크빌 민주주의 개념에 포함된 ‘자유’와 ‘평등’이라는 세부 개념의 의미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토크빌의 자유와 평등의 개념을 각각 분석적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크빌의 민주주의론에서 두 개념이 어떻게 관련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1. 정치적 자유인가, 시장의 자유인가

토크빌의 자유 개념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당시 프랑스 지성계의 담론부터 검토해 보자. 토크빌은 자신보다 한 세대 앞서서 활동했던 사상가 콩스탕(Benjamin Constant)이 『근대인의 자유와 비교한 고대인의 자유』에서 전개했던 두 가지 자유 개념을 직접적으로 참조했다.

고대인들에게 자유는 공적인 업무 참여, 주권의 직접적 행사라는 용어로 정의된다. 이러한 집단적 자유는 전체의 자유에 개인의 자유가 완전히 종속됨과 동시에 진행된다. 의견, 산업, 종교 등의 문제에서 어떠한 개인의 자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 반면에 근대에서 개인들은 사적인 삶 속에서 독립된 존재로서 자유롭게 사고한다. 우리들의 자유는 사적인 독립의 향유로서 정의된다(홍태영, 2006: 107 재인용).

콩스탕은 고대의 자유 개념의 핵심이 ‘공동체의 주권행사 참여’였다고 지적했다. 현대의 연구자들도 고대 그리스의 자유를 ‘계약 없이 자치를 행사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그리스인들이 자유를 얻는 방법은 단 하나, 폴리스

에 활동적인 시민으로 참여하는 것뿐이다. 폴리스 바깥에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폴리스에 참여하지 않는 개인은 자유로운 시민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천부인권으로서 자유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정치공동체인 폴리스에 승리와 이익을 줄 수 있는 자유만이 있었다. 공동체만이 시민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생각은 그들은 자명한 진리였다. 반면에, 콩스탕의 논리에서, 근대인의 자유는 공공 시민의 삶 바깥의 사적인 영역의 것이다. 국가권력이 약속하는 자유가 아니라 시민 스스로 독립성을 갖고 사유하고 행위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공적인 영역의 삶은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시민 참여에 의해 보완되어야 하지만, 순수하게 사적인 영역은 개인의 독립된 인격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근대 자연법의 원리는, 공적 참여와 무관하게, 새롭게 탄생한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격상시켰다. 콩스탕은 분명 근대인의 자유, 곧 사적인 자유의 보존을 핵심으로 생각했고, 이런 점에서 일반의지로서의 국가와 그것에의 참여를 강조했던 루소의 정치적 자유 관념을 비판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콩스탕의 구분을 참조하면, 토크빌의 자유 관념에 대한 기존의 이해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토크빌 연구자들은 그가 고대적인 '정치 참여의 자유'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한다. 실제로 토크빌은 미국인들이 자기 생업을 잠시 제쳐두고서라도 타운의 업무를 맡고 사법 영역에서 배심원직을 수행하며 나아가 자발적으로 단체를 조직하여 공공 사안에 참여하는 전통에 대해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토크빌은 정치적 자유를 위해서 사적인 영역의 자유를 희생시키지 않았다. 선후 관계로만 보면, 개인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사적인 자유야말로 미국의 정치적 자유를 달성하는 선행 요소였다.⁵⁾

5) 이러한 사적인 자유는 개인주의의 확장, 곧 자기의 경제적 이익만을 강조하는 경향을 낳을 수 있다. "민주 시대의 사생활은 너무나 바쁘고 흥분되어 있고, 욕망과 생업으로 가득하기에, 공공의 삶에 기여할 에너지와 여가가 남아 있지 않다."('미국의 민주주의', II-43) 그렇다고 할지라도, 토크빌은 개인의 독립성을 인정한 상태의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시민의 결사와 공공 삶에의 참여를 강조한 것이지,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부정하지 않았다.

미국에서 자유는 기본 이념이다. 누구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미국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에 관한 한 최선의 유일한 판단자이고, 어떤 사람의 행동이 공동의 이익에 배치되지 않거나 공동의 이익이 그 사람의 도움을 요구하지 않는 한, 사회는 그 사람의 행동을 규제할 권리가 없다.”(『미국의 민주주의』, I-1-5) 이를 기초로, 미국의 민주주의는 개인주의의 원심력으로 인해 해체될 수 있는 사회에서 개인의 적극적인 공적 참여라는 구심력을 이끌어낸 독특한 체제였다. 미국인들은 자유를 바탕으로 공공의 영역에 참여하는 것을 제도와 습속의 차원에서 습관화했기 때문에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반대, 곧 개인의 자유를 억제한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은 전체주의 체제의 특징이다. 민주국가와 독재국가는 공적 참여 수준이나 경제상 평등의 여부가 아니라 개인의 독립성과 자유를 인정하는가의 여부에서 구분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저술할 때 토크빌은 개인의 독립을 강조하면서도 굳이 사적인 자유의 중요성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기초로서 미국에서는 자명히 자명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1848년 혁명이 중국에 루이 보나파르트의 황제 등극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빚어내고 좌절된 상태에서 토크빌이 쓴 말년의 대표적 저작인 『구체제와 프랑스혁명』은, 그것이 미국이 아닌 프랑스를 다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자유의 ‘관념’만 있고 ‘실제’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프랑스를 연구했기 때문에 개인의 사적인 자유를 핵심 문제로 분석한 것이다. 마치 자신이 갑자기 자유를 강조했다는 식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토크빌은 『구체제와 프랑스혁명』에서 다음과 같이 공개적으로 선언하기도 했다.

내가 20년 전에 생각하고 말했던 내용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그 이후로 내 생각을 바꿀 만한 어떠한 일도 세상에 일어나지 않았다고 나는 단언한다. 자유의 의미가 각광 받던 때에 내가 자유에 대한 애착을 피력했으므로, 자유가 망기되어 버린 지금 내가 그것을 계속 주장한다는 사실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구체제와 프랑스혁명』, 서론).

전제적인 프랑스 사회에서도 자유는 있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도 부유해지려는 욕구, 돈벌이에 대한 선망, 이익에 대한 애착, 안락과 물질적 만족의 추구”뿐이었다. “전제정의 본질은 바로 이런 경제적 자유만을 유포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토크빌은 이런 이기심을 치유하는 방법 또한 오직 자유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자유만이 전제적인 사회에 내재한 악덕들을 효과적으로 물리칠 수 있다. 사실상 자유만이 시민들을 고립 상태에서 끄집어내어 서로서로 접촉하도록 이끌어 주며, 공통의 관심사를 실행에 옮기는 데 서로 상의하고 토론해야 할 필요성을 매일같이 그들에게 일깨워 준다. 자유만이 금전에 대한 숭배와 잡다한 개인사에서 시민들을 구해낼 수 있으며 그들의 옆에는 언제나 조국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줄 수 있다. 자유만이 때때로 안락에 대한 애착을 조금 더 강렬하고 고상한 열정들로 대체할 수 있으며, 부의 획득을 넘어선 숭고한 목적들에 대한 야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인간의 미덕과 악덕을 식별할 수 있게 해 주는 빛을 제공해 줄 수 있다(『구체제와 프랑스혁명』, 서론).

자유롭지 못한 민주주의 사회도 존재할 수 있다. 자유가 박탈된 사회에서도 사람들은 부유하고 고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사회에서는 결코 위대한 시민들을 찾을 수 없다. 평등과 전제(despotism)가 하나로 결합하면, 심성과 정신의 수준은 저하된다. 평등의 관념이 자유의 가치를 대체하는 사회는 형식적으로는 민주 제도를 갖추더라도 위대한 개인과 천박한 자를 동렬에 세우려 골몰하고, 천박한 욕망에 휩쓸려 도덕과 양심을 멀리하고 대신 경제적 가치에만 열중하게 한다.

결론적으로 콩스탕과 토크빌의 관계는 이중적이다. 첫째, 토크빌이 공적 참여의 자유라는 이상과 미국에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행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그는 콩스탕이 근대적 자유 관념을 더 강조한 것을 비판한다. 하지만, 둘째, ‘개인의 독립성’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그는 콩스탕의 계승자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개인의 자유는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 그 자

유는 사생활과 이익에만 묶일 수 있고 그것은 천박한 평등에의 열정과 결합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자유의 억제가 아니라 자유의 진정한 가치를 스스로 인식하게 하는 데 있을 뿐이다.

2. 민주주의하의 평등인가, 평등의 민주주의인가

『미국의 민주주의』 I권 서론에서의 언급을 보자면, 전반적으로 유럽의 사회 상태가 점차 평등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토크빌에게 신의 섭리처럼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 역사책들을 훑어보면, 지난 700년 동안 일어난 어느 한 가지 사건도 생활 조건의 평등을 증진시키지 않은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미국의 민주주의』, I-서론) 토크빌이 언급한 사례들을 읽다 보면 그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십자군 전쟁과 영국의 내전은 귀족 계급의 경제적 종교적 기반을 고갈시켰고, 이탈리아 도시의 자치 공화국은 시민적 자유의 관념을 현실화했다. 총기의 발전은 전쟁터조차도 평준화시켰다. 귀족의 말과 갑옷은 총알 앞에서 무력해지고 말았다. 인쇄술과 우편제도의 발전은 정보의 유통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엘리트와 대중의 지식 수준을 평준화시켰다. 종교개혁은 심지어 “구원의 길”마저 평등화시켰다. 마지막으로 신대륙의 발견은 구대륙의 가난한 사람들이 실제로 부유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처럼 “평등 원리의 점진적 전개가 신의 섭리”이기에, 평등화의 진행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처럼 토크빌은 평등화의 진행을 민주주의의 발전과 같은 것으로 이해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에 대해 매우 독특한 관점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세기 초반까지 민주화를 이끈 계급은 부르주아지, 곧 상공업으로 부를 축적한 시민들이었다. 따라서 당시 민주주의 사상은 바로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자유주의가 주종을 이뤘다. 그 시대의 자유주의자들은 민주주의를 유산 계급의 것으로 이해했고, 따라서 그들만의 제한적인 참정권이 올바르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따라서 당시 자유주의자들은 일반 민중의 참정권을 인정하는 정치적 평등의 개념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관념은 고대 그리스의 실체적 민주주의 개념을 거부하게 했다. 아리스토텔레스(2009)의 정체 분류에서 민주정은 다수가 통치하는 체제였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하층 민중인 데모스(demos)가 실제 존재했는데,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계층인 데모스가 폴리스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이들은 열흘 남짓마다 열리는 민회에 참가하여 폴리스의 공적인 사안에 대한 토론을 지켜보고 투표로 정책을 결정했다(포레스트, 2001). 자유주의자들은 고대의 실체적 민주주의에 내재한 비합리적 결정의 가능성을 우려했다. 더구나 근대 사회의 구성원간의 차이는 계급과 지위에 의해 너무나 커져 있었다. 사실 그리스의 폴리스 민주주의가 그나마 작동할 수 있었던 것도 실제 주요 생산 담당자인 노예들을 배제해서 폴리스 시민들 사이의 동질성을 높였던 데 기인했다.

따라서 자유주의자들이 근대의 계층간 불평등을 감안한 상태에서 민주주의 이론을 전개할 때 유일하게 인정할 수 있었던 평등의 관념은 자유를 위한 권리상의 평등(equality in the right to liberty) 개념밖에 없었다. 이는 일반적인 용어로는 ‘법 앞의 평등’과 ‘권리의 평등’의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이론에서는 이 정도 수준으로 실질적 평등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물론 그것조차도 프랑스대혁명이라는 급진적인 상황 전개 이후에 비로소 가능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건국기는 물론 그 이전부터 실질적인 평등화가 진행되었다. 프랑스에서는 대혁명을 통해 어렵게 성취된 자유주의적 평등의 두 원칙이 미국에서는 그것보다 십여 년 전의 ‘독립선언서’에서 관철되었고, 대혁명과 같은 시기에 ‘연방헌법 수정조항’에 명문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물질적 재부나 사회 진출상의 열린 기회 등과 같은 실질적인 평등이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은 토크빌에게 두 가지 가설을 생각하게 했을 것이다. ‘민주적 정치체제는 사회 상태의 평등을 진행시킨다’는 가설과 ‘평등은 민주적 정치체제를 촉진시킨다’는 가설이다. 그런데, 토크빌은 민주적 정치체제와 평등 가운데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는 토크빌이 지나친 관념화의 위험을 경계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동시에 ‘미국이라는 모관’이 가지는 분석상의 우선성과 실제 역사적 경험을 강조하여 결국 미국의 제도와 습속을 핵심 변수로 강조하려는 저술 의도 때문이기도 하다.

평등과 자유는 본래부터 친화적인 가치가 아니었다. 17세기 영국, 18세기 말 미국에서 민주적 제도가 등장하면서 비로소 사상가들은 자유와 평등이 상충할 수 있고 그 결과 사회적 긴장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본래 사회계약론의 전통에서 평등과 자유는 상충하지 않았다. 사회계약론의 주창자들에게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였다. 군주정을 옹호했던 홉스를 제외한다면, 그들은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인식하여 그것들을 중심 가치로 하는 민주적 정치체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도 공유했다. 그런데 이들은 당대의 군주정 체제와 특권 귀족 계급에 맞서야 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미 현실화되기 시작한 사회적 세력인 부르주아 계급의 경제 권력이나 대중들의 압력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따라서 사회계약론을 급진화한 초기의 이상적 사회주의자들 역시 군주정에서 벗어나는 혁명을 통한 시민의 자유와 평등의 양립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공유했다. 반면에 현실의 냉혹함을 잘 알고 있는 귀족 출신의 보수주의자들은 민주주의의 발전 결과 나타날 평등의 강조는 결국 귀족과 같은 특권 계급이 누리려는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수주의자들은 특히 재산권 침해에 노골적으로 반발하기보다는 인간의 지식과 문화적 수준 차이 때문에 평등의 확산 결과 유럽 문명의 자유 전통이 타락할 것이라고 진단하는 방식으로 평등화 추세를 경계하는 논리를 폈다.

미국의 대중사회를 경험하고 돌아온 토크빌은 보수주의자들의 우려가 틀렸다는 것을 확인했다. 『미국의 민주주의』 II 권의 1~2부는 민주주의 하에서 관념과 문화 영역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성격이 변화한 것임을 보여 주는 사례들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인들은 유럽의 사변적 철학 없이도 스스로의 상황에 대해 주체적으로 노력하는 실용적인 철학을 발전시켰다. 따라서 이들은 유명한 학자나 지식인의 조언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이는 과학 분야에도 영향을 미쳐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제 생활에서의 편리성을 가져오는 기술의

발전을 가져 왔다. 이러한 성향은 결정적으로 이들의 사유 습관에도 영향을 미쳤다. 평등이 초래한 그러한 사유 습관에 의해 그들은 최대의 결착을 생산해내지는 못했지만 평범한 인간들이 살아갈 세계를 형성하는 데에는 성공했다. 유럽의 귀족국가들이 소수의 영웅적 개인들을 찬미하는 동안, 민주적인 미국은 평범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강한 시민을 형성시켰다(Ⅱ-1-20).

그런데 토크빌은 평등의 긍정적 효과 못지않게 그것이 미칠 부정적 영향도 꿰뚫어볼 만큼 신중했다. 기본적으로 민주 국가의 국민은 이미 성취된 사적인 자유의 중요성을 인식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눈앞에 현상하는 불평등에 분노하고 평등을 성취하는 데 열정을 쏟는다. 그 이유는 “자유에서 얻어지는 이익은 시간이 경과해야만 나타나는 데 반해 평등에 의한 이익은 즉각적이기 때문이다.”(『미국의 민주주의』, Ⅱ-2-1) 사람들은 평등이 조성하는 작은 기쁨들, 곧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을 바닥으로 끌어내릴 때의 쾌감이나 남들과 똑같은 물질적 쾌락을 자기도 느끼게 된다는 안도감 등의 천박한 정열을 갖고 있다. “평등에 대한 그들의 열정은 열렬하고 탐욕스러우며 지칠 줄 모르고 제어할 수 없다.” 평등화의 진행은 이런 본성을 사회 전체로 확산시켜 그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거대한 “보호자적의 권력”(protective power, 『미국의 민주주의』, Ⅱ-4-6)에 이끌리게 되어 자유를 질식시킬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극단적인 평등에의 압력이 강화되면 사람들은 “노예 상태의 평등마저도 요구한다.”(『미국의 민주주의』, Ⅱ-2-1)

3. 평등과 공존하는 자유주의

사상사에서 토크빌은 보수적 민주주의자로 구분되는 경우가 많지만 대체로 편견에 근거한 것들이다. 예컨대, 토크빌은 프랑스대혁명이 자유와 전제라는 두 모순된 결과를 빚어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역사가들이 혁명과 자유를 구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ichter, 1988). 오늘날 우리는 동유럽, 남미, 아랍 등의 민주화 혁명 이후 혁명 세력에 의해서 또는 여러 복잡한 과정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시민의 자유가 억압 받는 역설적 상황을 보면

서 토크빌의 생각이 보수적인 것이 아니라 사려 깊은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토크빌을 보수적이라고 비판하는 이들은 그가 자유주의의 전통을 옹호하고 사회가 지속되는 데 필요한 도덕적 자유를 강조했다라는 점을 문제시한다. 하지만 앞서 검토한 것처럼 보수적 자유주의의 전통과 토크빌은 두 가지 점에서 양립하기 어렵다.

첫째,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점검하면서 민주주의가 사회 상태의 전반적 평등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자주 강조했다. 사회 상태의 평등은 부의 평준화뿐만 아니라 신분과 종교상의 차이에 따른 차별의 철폐, 사회 성원 사이의 교육과 지식 정도의 평등, 공공의 사안에 대해 참여하는 권리상의 평등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다. 오늘날의 용어로 표현하면, 경제 영역은 물론 정치 영역과 사회문화 영역 모두에서 평등이 진행된 상태이다. 그러한 사회 상태의 평등이 미국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에 미친 영향은 『미국의 민주주의』 II권 전반부의 주요 테마이기도 했다. 따라서 민주적 정치 체제는 반드시 평등에 대한 관념이 제도를 통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은 토크빌에게는 자명한 진리이다. 민주적 정치 체도가 운영되면 자연스럽게 시민의 평등 관념이 선거제도를 통해 평등한 법률 제도 형성을 이끌어내게 된다. 토크빌이 수행한 연구 어디에도 그가 경제적 사회적 평등에 대해 못마땅해하거나 비판한 적은 없다.

둘째, 당시의 경제적 자유주의나 오늘날 신자유주의자들과 달리 토크빌은 경제적 자유만으로 세상이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펼친 적이 없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토크빌은 경제적 자유를 강조하는 사회는 결국 계급간의 분열로 인해 평등의 토대를 무너뜨리게 되어, 결국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토크빌은 미국인들이 철저히 상업의 정신에 투철한 국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에게 경제적 이익의 추구는 굳이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최상의 가치이다. 미국을 특징짓는 자유의 정신에는 경제적 자유의 원칙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미국인들이 존중하는 경제 자유의 원칙에는 하나의 단서가 붙는다. 자기 이익의 추구는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심각한 윤리학

적 통찰을 통해 얻어진 것이 아니라, 식민지 시기부터의 상업 경험을 통해 얻어진 삶의 지혜였다. 장기적인 자기 이익 보호를 위해서는 때로 “절제와 자기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서로 도우며 국가의 복지를 위해 개인의 시간과 재산을 기꺼이 할애”하는 것이다. 18세기 영국의 아담 스미스(2009[1759])가 『도덕감정론』을 통해 윤리학적으로 사유한 것을 미국의 일반 시민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몸소 실행했다. 미국에서 비로소 시장과 민주주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실증된 것이다.⁶⁾

토크빌은 이러한 통찰을 통해 영국의 고전 자유주의 경제학과 미국의 민주주의의 정치학을 연결시키는 고리를 찾아냈다.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는 그것보다 상위의 도덕적 자유의 전통이라는 조건하에서 비로소 결합된다는 것이다. 미국인들에게 습속화한 도덕적 자유야말로 경제적 자유가 민주주의를 침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도덕적 자유가 붕괴된다면 경제적 자유가 작동할 사회의 공공 정신도 사라지고 만다. 이러한 발견은 토크빌이 상업 정신을 존중하면서도 오늘날의 신자유주의 경제학과 같은 경제지상주의에 동의하지 않게 만들었다.

3장 3절에서 검토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토크빌은 사회 상태의 평등과 도덕적 자유의 규제 아래서의 경제적 자유를 인정했다. 따라서 토크빌을 통례의 자유주의자로 해석하거나 보수적 민주주의 이론가로 해석하는 것은 오류이다.

IV. 맺음말

이 논문은 토크빌 민주주의론에 대한 분석적 재구성과 콘텍스트적 해석을 시도하여 그의 전체 사상에 관통하는 핵심 개념의 의미를 찾기 위해 작성되

6) 토크빌이 여행했던 19세기 초중반의 미국은 경제적 활력과 민주적 습속이 전반적으로 조화를 이뤘지만,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득세한 현재의 미국 사회를 이 관점으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 미국 사회의 불평등과 부조리에 대해서는 김광기(2011)를 볼 것.

었다. 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토크빌의 민주주의에 대한 유일한 정의와 달리, 이 연구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비롯한 여러 저작의 민주 정치론 서술을 종합하여, 실제 토크빌은 미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국민주권 체제로서의 민주주의 개념 외에 사회 상태의 평등과 지역 자치를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제시했음을 밝혀냈다. 둘째, 민주주의 개념의 하위 요소인 자유와 평등의 개념을 각각 분석한 결과로서, 먼저 토크빌의 자유 개념의 핵심은 공공영역에의 참여 못지않게 사적 영역의 자유를 강조하는 데 있었고 시장의 자유보다는 정치적 자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사회상태의 평등을 강조했으면서도 그것이 갖는 전체주의의 위협을 경험하며 기회 균등에 더 근접한 평등 개념을 전개했다. 이처럼 사회 상태의 평등과 도덕적 자유의 규제 아래서의 경제적 자유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토크빌을 자유와 평등을 상호보완적 요소로 강조한 민주주의 이론가로 구분할 수 있었다.

토크빌의 민주주의론에서 정치적 자유의 강조에는 여러 요인이 있었을 것이다. 토크빌 시대의 프랑스의 사회 상황과 그의 가족사적 배경도 그것에 영향을 미쳤을 것임에 분명하다. 토크빌이 청년기에 경험했던 1830년의 혁명적 정치 변동 과정에서 겪은 굴욕감이 미친 영향도 컸을 것이다. 그러나 토크빌이 자유를 강조하게 된 가장 큰 요인에는 1789년 대혁명 이후 공화정 수립과 왕정복고라는 두 정치적 극단 상태를 끊임없이 오가면서 막 태동하고 있던 사회주의의 압력에 취약하게 노출된 프랑스의 사회 상태가 있었다. 평등에 대한 민중의 욕구는 당시 프랑스 사회구조가 견뎌낼 수 있는 한도 너머까지 부풀어 올랐다. 그러한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공화정은 예전 절대왕정의 유산인 거대한 중앙권력을 통해 강력한 정책을 실시하려는 유혹에 굴복하게 되었다. 결국 공화정이든 복고왕정이든, 프랑스는 권력의 중앙 집중에 따른 개인 자유의 침해 및 지방 자치 능력의 훼손을 낳았다. 정치적 불안은 대중의 직접민주주의 요구를 부활시켰고 이는 다시 선동 세력이 발호하게 되는 조건을 만들었다. 결국 이런 혼란은 또다시 비정상적인 헌정 중단(쿠데타)의 구실을 마련하여 전제정을 불러들이게 된다. 『미국의 민주주의』

가 완간되고 8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1848년의 혁명과 2년여의 사회적 혼란, 뒤이은 루이 보나파르트의 친위 쿠데타와 왕정복고는 토크빌에게 그러한 심증을 더욱 굳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Tocqueville, 1987). 영국과 달리,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자유주의 혁명 전통이 부재한 프랑스에서 토크빌은 자유의 존중을 통해 혁명과 반혁명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자 했던 것이다(Richter, 2006). 이런 본질적 자유에 대한 강조는 동시대 도버 해협 건너편의 존 스튜어트 밀과 토크빌이 서로를 학술적으로 존중하고 우정을 나누게 하는 배경이 되었다(Mill, 2015[1873]). 자유에 대한 강조는 토크빌의 후기 사상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되어, 정치 활동과 『구체제와 프랑스혁명』 저술에서 정점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은 민주주의 발전이 더딘 국가 어디에서나 전개될 수 있지만, 독립된 개인이 존재하지 않고 자율과 자치의 시민문화가 부재한 한국에서 쉽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 토크빌 민주주의론의 현재적 가치는 바로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 존재한다. 토크빌은 몽테스키외와 루소에게서 자유가 다른 무엇을 위한 수단이 아니고 또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얻어지는 결과도 아닌, 그 자체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근원적인 가치라는 것을 배웠다. 이런 사상적 유산에 미국에서의 경험이 더해져 평등과 공존하는 자유의 원리를 탐색할 수 있었다. 사회 상태의 평등은 자유를 존중하는 정치 체제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평등하면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평등이 요구하는 획일성의 요구와 노예화의 위험에 맞서도록 하는 덕성과 용기가 필요하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정치에서 각 정권들이 경쟁적으로 복지 기능을 확대하고 평등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사회에 대한 국가 권력의 침투가 확대되어 가는 한국의 상황에서 자치와 자유를 강조한 토크빌의 민주주의론에 대한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

참고문헌

- 김광기(2011), 「우리가 아는 미국은 없다」, 서울: 동아시아.
- 김성건·박희·백인호 외(1996), 「알렉시스 드 토크빌을 찾아서」, 서울: 학문과사상사.
- 루소, 장 자끄(1990), 「사회계약론」, 이환 옮김, 서울: 삼성출판사. Rousseau, Jean Jacques(1762), *Du Contrat Social; ou Principes du droit politique*, A Amsterdam, Chez Marc Michel Rey.
- 민문홍(2008), 「현대사회학과 한국 사회학의 위기」, 서울: 길.
- 밀, 존 스튜어트(2015), 「존 스튜어트 밀 자서전」, 최명관 옮김, 서울: 창. Mill, J. S.(1873), *Autobiography*, London: Longmans, Green, Reader, and Dyer.
- 박영신(2004), “잿빛 도시의 한 작은 텃밭: 시민운동의 상근자들, 그들은 누구인가?”,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현상과 인식」, 28권 4호, 112-140쪽.
- 박흥규(2008), 「누가 아렌트와 토크빌을 읽었다 하는가 - 한국 인문학의 왜곡된 추상주의 비판」, 파주: 글항아리.
- 방문숙(1997), “토크빌과 자유주의”,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방문숙(2001), “돌아온 토크빌”, 한국서양사학회, 「서양사론」, 69호, 159-182쪽.
- 서병훈(2017), 「위대한 정치 - 밀과 토크빌, 시대의 부름에 답하다」, 서울: 책세상.
- 스미스, 아담(2009), 「도덕감정론」, 서울: 비봉출판사. Smith, A.(1759),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London.
- 아롱, 레이몽(1980), 「사회사상의 흐름」, 이종수 옮김, 서울: 홍성사. Aron, R.(1967), *Les Étapes de la pensée sociologique - Montesquieu, Comte, Marx, Tocqueville, Durkheim, Pareto, Weber*, Paris: Gallimard.
- 아블라스터, 앤서니(2007), 「서구 자유주의의 융성과 쇠퇴」, 조기제 옮김, 파주: 나남. Arblaster, A.(1984), *The rise and decline of western*

- liberalism*, New York: Blackwell.
- 아리스토텔레스(2009), 「정치학」, 이병길 · 최옥수 옮김, 서울: 박영사.
- 이황직(2009), “토크빌의 제도와 습속의 방법론 연구: 「미국의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이론학회, 「사회이론」, 36호, 147-175쪽.
- 이황직(2012), “토크빌의 ‘민주적 전제’론의 분석적 재구성”, 한국사회이론학회, 「사회이론」, 43호, 3-38쪽.
- 토크빌, 알렉시스(1983), 「미국의 민주주의」, 박지동 옮김, 서울: 한길사.
- Tocqueville, Alexis de(1835, 1840), *De la démocratie en Amérique I · II*, Paris: Charles Gosselin.
- 토크빌, 알렉시스(1989), 「구체제와 프랑스혁명」, 이용재 옮김, 서울: 일월서각.
- Tocqueville, Alexis de(1856), *L'ancien régime et la révolution*, Paris: Michel Lévy frères.
- 토크빌, 알렉시(2018),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1 · 2, 이용재 옮김, 파주: 아카넷.
- Tocqueville, Alexis de(1835, 1840), *De la démocratie en Amérique I · II*, Paris: Charles Gosselin.
- 포레스트, 윌리엄(2001), 「그리스 민주정의 탄생과 발전」, 김봉철 옮김, 서울: 한울아카데미.
- Forrest, W.(1966), *The emergence of Greek democracy*, New York: McGraw-Hill.
- 한국미국사학회 엮음(2006), 「사료로 읽는 미국사」, 서울: 궁리.
- 홍태영(2001), “토크빌과 민주주의의 패러독스”,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35집 3호, 67-83쪽.
- 홍태영(2006), 「몽테스키외 & 토크빌」, 파주: 김영사.
- 홍태영(2008), 「국민국가의 정치학」, 서울: 후마니타스.
- Damrosch, L.(2010), *Tocqueville's Discovery of America*,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 Elster, J.(2009), *Alexis de Tocqueville, The First Social Scientis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ntington, S.(1991),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Levi, B. H.(2007), *American Vertigo: Traveling America in the Footsteps of Tocqueville* (tr. by Charlotte Mandell), New York: Random House Trade Paperbacks.
- Mansfield, H. C., D. Winthrop(2002), "Editors' Introduction", Alexis de Tocqueville, *Democracy in America*, ed. Harvey C. Mansfield and Delba Winthrop,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xvii-lxxxvi.
- Pierson, G. W.(1996), *Tocqueville in America*,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The original work is as follows: Pierson, George W.(1938), *Tocqueville and Beaumont in Americ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rzeworski, A.(1991), *Democracy and Marke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chter, M.(1988), "Tocqueville, Napoleon, and Bonapartism", in *Reconsidering Tocqueville's Democracy in America*, ed. Shmuel Eisenstadt,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pp. 110-145.
- Richter, M.(2006), "Threats to Liberty in Democracies",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Tocqueville*, ed. Cheryl B. Wel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45-275.
- Tocqueville, Alexis de(1987), *Recollections - The French Revolution of 1948*, ed. J. P. Mayer and A. P. Kerr, New Brunswick: Transaction Press.
- Tocqueville, Alexis de(2002[1848]), "Definition of Democracy", in *The Tocqueville Reader*, ed. Olivier Zunz· Alan S. Kahan, Malden: Blackwell Publishers, pp. 250-251.
- Valenzuela, S.(1992), "Democratic Consolidation in Post-Transitional

Settings: Notion, Process, and Facilitating Conditions”, in *Issues in Democratic Consolidation: The New South American Democraci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ed. Scott Mainwaring, Guillermo O'Donnell, J. Samuel Valenzuela, Notre Dame: Notre Dame University Press, pp. 57-104.

Welch, C. B.(ed.)(2006), *The Cambridge Companion to Tocquevill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Zunz, Olivier and Alan S. Kahan(eds.)(2002), *The Tocqueville Reader*, Malden: Blackwell Publishers.

〈Abstrat〉

Analysis and Evaluation of Tocqueville's Concept of Democracy

Yi, HwangJik

This paper attempted to restructure and contextualize his writing to find the meaning of the core concepts of Tocqueville's theory of democrac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ocqueville presented equality of social status and regional autonomy as the core of democracy in addition to the democratic concept as national sovereignty theory.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ncept of freedom and equality, the core of Tocqueville's concept of freedom was to emphasize freedom of private sector as well as its participation in the public domain, and also focusing on political freedom. In that he recognized economic freedom under the control of equality in social conditions and moral freedom, this study divided Tocqueville into a democratic theorist who emphasized freedom and equality as complementary factor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clear. Citizens should try harder to prevent this transition to despotism even if it would soft and luscious. This is why democratic civic culture and participation in public affairs at all levels from local to national are needed.

Key words: Alexis de Tocquevill, *Democracy in America*, The Crisis

of Democracy, Civic Culture of Liberty and Autonomy,
Equality in Slavery

논문접수일: 2018년 9월 28일, 심사완료일: 2018년 12월 7일, 게재확정일: 2018년 12월 18일